

「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」 회의 개최**- 마약사범 치료·재활 강화 위해 마약사범재활과(가칭) 신설 필요 건의 -**

□ 법무부는 2024. 3. 27.(수) 10: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*(위원장 임대기)를 개최하여 ‘마약사범에 대한 치료·재활 강화 방안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*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를 통·폐합한 것으로,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

□ 이번 회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에서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,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*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** 등을 보고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,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치료·재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* '23년 2개 기관(화성직업훈련교도소, 부산교도소) → '24년 4개 기관(광주교도소, 청주여자교도소 추가) 지정 운영 / 전담교정시설은 회복이음과정(160시간) 별도 운영

** ① 마약사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(기본 40시간, 집중 80시간, 심화 120시간, 회복이음과정 160시간)
② 비(非)마약사범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③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 ④ 마약사범 출소 후 치료·재활 연계

□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(자문위원)은 “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·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, 현재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 정책은 장기적인 면에서 매우 효용이 크다.” 고 말하였습니다.

□ 이날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(위원장 임대기)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·단속과 더불어 무엇보다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, 교정본부 시행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였습니다.

-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·평가 및 실제적인 환류·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'마약사범재활과(가칭)' 신설 필요
-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본부는 보건복지부 치료병원,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,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

□ 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'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치료·재활 강화'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, 앞으로도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·반영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교정본부 교정기획과	책임자	과 장	이희정 (02-2110-3366)
		담당자	교정관	승영근 (02-2110-3458)